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각국의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어제 종가로 코스피지수가
사상처음 3,200pt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 코스피 지수 : '19.12월말 2,197.7 → '20.3.19. 1,457.6 → '20.12월말 2,873.5 → '21.1.25. 3,209.0

회사채, 단기자금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회사채AA-스프레드(민평 3년물, bp): '20.1.2. 42.5 → 6.30. 72.4 → 12.31일 42.2 → '21.1.25일 34.2

2. 금융리스크 대응방향

[부채 및 유동성 증가 리스크 관리]

다만, 금융시장 안정의 이면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금년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며,

*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생애소득주기 반영 등 DSR 산정방식 합리화 등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익스포저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식시장으로의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며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V-KOSPI 지수: '18말 18.99 → '19말 14.69 → '20.6월 31.07 → '20.12월 22.09 → '20.1.21. 30.63

아울러,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포상금 대폭 확충 ('22년 예산반영 추진)

**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 검토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유입 유도]

아울러, 풍부한 유동성이

①생산적 분야와 ②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주펀드 제안서 접수(‘20.12.29.~’21.1.26.)가 오늘 마감됩니다.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월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도
4월중 3차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제조업·ICT 분야외에
문화콘텐츠(문화부), 스마트팜(농식품부), 스마트시티(국토부) 등
새로운 분야로 선정대상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에 벤처대출 등 기업금융 신규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 신용공여 추가한도 부여범위 조정(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추가)

[양극화 대응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지속]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실적은 '20.3분기 이후
위기 초기에 우려한 것보다 빠르게 개선되었으며,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주가 상승률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속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불평등한 충격**”을 야기하였으며,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175조원 +@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①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 ②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③코로나 피해대응
P-CBO, ④기간산업안정기금, ⑤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등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또한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시행중('20.4.1.~'21.3.31.)

한편,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닌,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및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산은), IBK시설투자대출(기은) 등

3. 마무리 말씀

아직 우리 경제에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는 곳곳하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함과 동시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온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